

TMTC 소감문

원대희

TMTC 훈련을 신청한 계기는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해외선교국에서 사역하는 아내가 있어 나도 선교에 대해 좀 더 알아봐야겠다는 마음으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는게 좋겠다 싶어 단순히 신청을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은 훈련이었고, 가볍지 않은 훈련이었습니다. 훈련 기간이 3-4달이고 매주 제출해야 하는 과제와 독후감,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임, 그리고 선교 계획서까지. 솔직히 매우 버겁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선교에 내 몸을 던지겠다는 뜨거운 열정과 감사함으로 훈련에 임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해 마음이 어렵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훈련에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을거라 생각하며 꾸역꾸역 과제를 제출하고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오며 해외선교라 하면 나와는 항상 거리가 있어보이고 뭔가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만 하는 사역이라 생각을 해왔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나가는 해외선교나 캠퍼스시절 아웃리치도 경험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 선교사님들의 강의와 간증을 들으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선교사님들도 개인적인 연약함과 어려움을 가지고 그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해외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겪으셨던 간증과 경험들을 들으며,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선교를 하기위한 내용들을 알게되어 앞으로 어떻게 내가 선교를 해야할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훈련 중 또한 기억에 많이 남는 시간은 한국 선교의 역사를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이루어진, 은혜에 빚진 나라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 감사하게 되었고, 우리도 다른 나라에 이런 헌신으로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TMTC 훈련을 수료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받은 훈련을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교하는 삶을 살기를 노력하며 기도하겠습니다.